

보도자료

페데리코 펠리니 탄생 100 주년 기념

‘펠리니의 축제’

장소: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기간: 2020 년 7 월 29 일 ~ 2020 년 8 월 2 일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탈리아의 위대한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 탄생 100 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한이탈리아 문화원의 강한 의지와 서울아트시네마의 귀한 협력으로 개최되는 “펠리니 축제”는 페데리코 펠리니의 탄생 100 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상영회로 서울아트시네마의 여름상영회인 “2020 시네바캉스”의 특별섹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7 월 29 일부터 8 월 2 일까지 진행되는 “펠리니 축제”에서는 펠리니 감독의 작품 다섯 편이 영어 및 한국어 자막으로 상영 될 예정입니다.

상영작품 및 상영일정표:

- 인터뷰 (Intervista, 1987 作) - 7 월 29 일, 19 시 30 분
- 오케스트라 리허설 (Prova d'Orchestra, 1979 作) - 7 월 30 일, 20 시
- 비텔로니 (I Vitelloni, 1953 作) - 7 월 31 일, 20 시
- 8 과 1/2 (Otto e mezzo, 1963 作) - 8 월 1 일, 16 시
- 영혼의 줄리에타 (Giulietta degli Spiriti, 1965 作) - 8 월 2 일, 16 시

이번 상영회는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님의 영화 다섯 편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하실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특히 영화에 관심 많은 우리나라 관객 및 젊은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상영작들이 이탈리아 역사 및 영화사의 한 시대를 다룬다는 점 또한 영화 감상의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1950년대 작품인 “비텔로니”는 펠리니의 출신지인 로마냐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펠리니는 이 지역에서 1920년도에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행운을 찾아 로마로 떠납니다. 영화는 시골의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보람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5명의 젊은이들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1963년 작품인 “8과 1/2”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펠리니에게 외국어영화상을 안겨준 작품으로 걸작으로 인정받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경제 호황기 속, 60년대의 이탈리아 시대 분위기 속으로 관객을 빠져들게 합니다.

1965년 작품인 “영혼의 줄리에타”를 통해 펠리니는 꿈과 마법 사이에서 한 개인의 관계를 탐험합니다.

1979년도 작품인 “오르케스트라 리허설”은 은유적인 영화로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시기에 이탈리아는 경제 불황과 정치적 위기를 겪으며 테러리즘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펠리니 감독의 후기 작품 중 하나인 “인터뷰”는 펠리니가 직접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영화로 펠리니의 모든 영화들이 촬영된 장소인 전설적인 치네치타 루체의 스튜디오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